

학교생활

중학교 두발·복장 규정이 궁금해요.

중2 학부모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학교에 얼마 못 가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올해 등교하는 아이를 보니 하의는 교복 바지나 체육복 바지를 입고 상의는 교복이 아닌 평소 복장으로 입고 다니던데, 그래도 괜찮냐고 한 선생님들께서 별말 안 하신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은 어떠한지, 이 같은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정희(45·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재학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정할 수 있어 학교마다 다릅니다. 과하지 않은 염색은 허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염색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고, 교복 상의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두발·복장 규정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발·복장 규정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학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중·고교 두발과 복장 규정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세종 고운중 김경도 교사는 "염색이나 파마는 아직 제한하는 학교가 많지만, 머리카락 길이는 자율화된 지 꽤 됐다. 복장 또한 교복만 입으라고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라 체육복은 물론 생활복 모두 교복으로 인정하고 있다. 방한을 목적으로 교복 위에 사복을 허용하는 경우 학생들이 사복만 입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도 사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지도가 쉽지 않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

MORE TIP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할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고교 용의복장 규제 완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과학탐구의 경우 동일 과목 I+II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둔 수시 전형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정시 전형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동일 과목으로는 I + II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과학 과목을 좋아해서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텐데, 대학이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_ 김선영(49·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중 한 과목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과목은 〈생명과학 I · II〉 〈물리학 I · II〉 〈화학 I · II〉 〈지구과학 I · II〉 8개입니다. 보통 자연 계열에서는 과탐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서울대는 '과탐 동일 과목 I+II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I+물리학 II, 화학 I+화학 II 조합으로 수능에 응시했다면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과탐 II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과학탐구 영역은 I · II 구분 없이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I+물리학 II를 선택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지만, 물리학 I+화학 I을 선택한 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보통 고2 때 과학 I과목을 배우고 고3 때 II과목을 2개 정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여러 과목을 공부한 뒤 자신에게 맞는 2과목을 선택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동일 과목으로 I+II 조합을 선택하고 싶을 수 있지만,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은 특정 한 과목만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의 폭넓은 이해력을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 합니다. Ⓜ

MORE TIP

현재 II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와 카이스트입니다. 여기에 가톨릭대가 2022학년 수시 지역 균형 전형에서 의예과의 최저 기준에 II과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학의 최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1학년 수능에서 과탐 II 응시 비율은 〈물리학 II〉 1.74%, 〈화학 II〉 1.83%, 〈생명과학 II〉 3.89%, 〈지구과학 II〉 2.34%였습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